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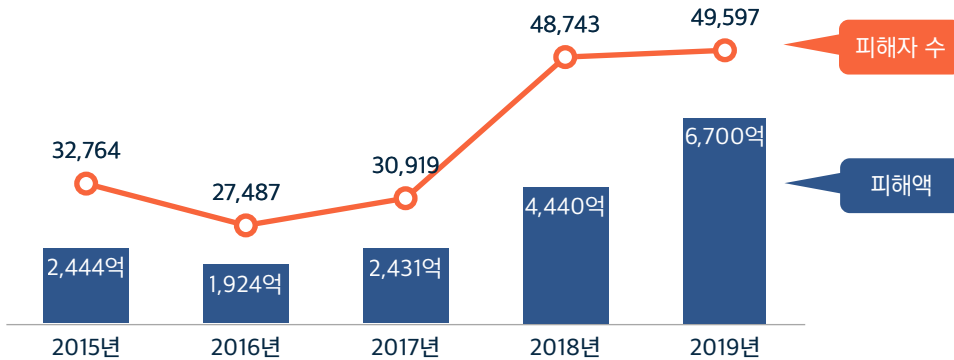
1



보이스피싱 2019년 피해, '피해자 50,000명 피해 금액 6,700억 원 수준'으로 심각!

- 국내 보이스피싱 연간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, '2015년' 2,444억 원에서 '2019년' 6,700억 원으로 4년 사이 무려 174%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피해자 수는 '2015년' 32,764명에서 '2019년' 49,597명으로 4년간 51% 증가하였음

[그림]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(피해액, 피해자 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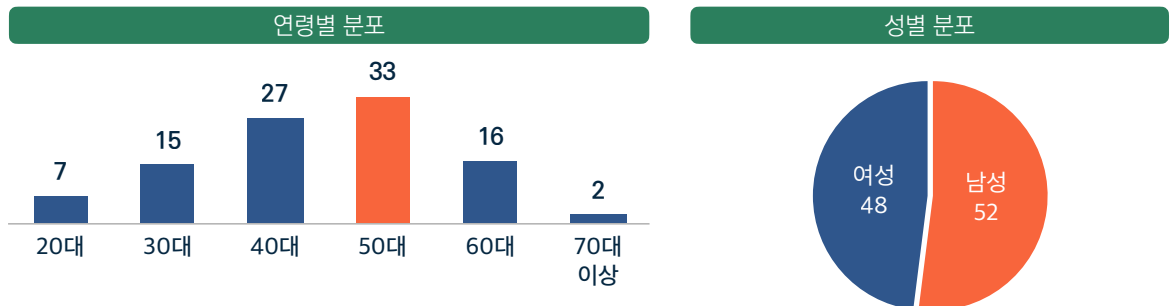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 : 금융감독원, '금감원, 보이스피싱 피해자 속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금융소비자 맞춤형 예방업무를 추진합니다' 2020.08.10.
(보이스피싱 피해자 135,000명 피해자 속성 빅데이터 분석, 2017-2020년 1분기)
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6/30/2020063001079.html

● 보이스피싱 피해자, '50대 연령층이 가장 많아!'

- 금융감독원이 2017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(135,000명)에 대해 빅데이터로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, '20대' 7%, '30대' 15%, '40대' 27%, '50대' 33%, '60대' 16%, '70대 이상' 2%로, '50대'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남
-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성별로는 '남성'(52%)이 '여성'(48%)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

[그림] 보이스 피싱 피해자 분석(성별, 연령별)

(%)



*자료 출처 : 금융감독원, '금감원, 보이스피싱 피해자 속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금융소비자 맞춤형 예방업무를 추진합니다' 2020.08.10.
(보이스피싱 피해자 135,000명 피해자 속성 빅데이터 분석, 2017-2020년 1분기)

●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별로는 ‘대출빙자형’ 피해자가 77%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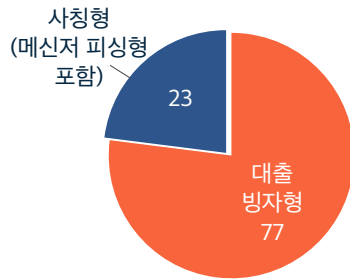
- 보이스피싱 피해의 세 가지 유형 즉 대출 빙자형, 사칭형, 메신저 피싱형 중 ‘대출 빙자형’이 77%로, ‘사칭형’(메신저 피싱형 포함, 23%)보다 훨씬 많음
- 성별 유형으로는 ‘남성’은 ‘대출 빙자형’이 58%로 가장 높고, ‘여성’은 ‘메신저 피싱형’이 71%로 가장 높음

* 대출 빙자형 :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전환 목적의 돈 입금을 요구하는 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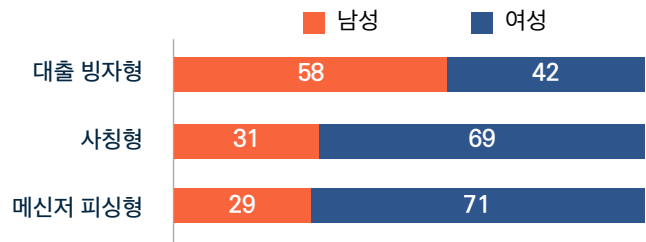
사칭형 : 검찰/금융감독원 수사관 등을 사칭 피해자 명의 대표 통장 개설에 따른 처벌 위협을 통해 입금을 요구하는 유형

메신저 피싱형 : 가족/지인을 사칭 메신저를 통해 입금을 요구하는 유형

[그림]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(%)



[그림]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(성별) (%)



*자료 출처 : 금융감독원, '금감원, 보이스피싱 피해자 속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금융소비자 맞춤형 예방업무를 추진합니다' 2020.08.10.
(보이스피싱 피해자 135,000명 피해자 속성 빅데이터 분석, 2017~2020년 1분기)